

KMI 국제물류위클리

www.kmi.re.kr

총괄_ 이성우 실장, 감수_ 김형태 감리위원

집필에 관한 안내

1. 「KMI 국제물류위클리」는 KMI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에서 모니터링하고 있는 국제물류시장 및 국제물류사업 동향 중 국내기업들의 해외진출과 신규사업 발굴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KMI 국제물류위클리」는 국제물류투자협업체 회원 및 관련분야 기업들에게 국내외 국제물류관련 정부정책 등의 주요 공지사항을 알려드리는 기능도 수행합니다.
3. 「KMI 국제물류위클리」는 국제물류관련 국내 관심기업, 정·관·학계 관계자 여러분께 매주 수요일 배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4. 「KMI 국제물류위클리」를 통해 소개되는 국제물류관련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는 기업들은 저희 센터로 연락¹⁾을 주시기 바라며, 동일사업에 다수기업들의 투자요청이 있을 경우 본 센터가 투자단(물류, 건설, 금융사 등) 구성 주선 및 지원들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 목 차 〉

□ CMHI, 스리랑카 콜롬보 컨테이너터미널 개발·운영 계약 체결 -----	2
□ CMA CGM, 자메이카 킹스턴 남 '컨' 35년간 운영권 획득 및 1억 달러 투자 예정 -----	3
□ 중국내 특송사업에서 손을 뗀 DHL, 중국내 창고 확충 예정 -----	4
□ 중국, 주하이 형친도를 준(準) 자유무역지역으로 개발 -----	5

1) 연락처: 김찬호 전문연구원(02-2105-2908, chkim@kmi.re.kr), 송주미 전문연구원(02-2105-2872, jmsong@kmi.re.kr),
김홍매 전문연구원(02-2105-2828, hisgrace@kmi.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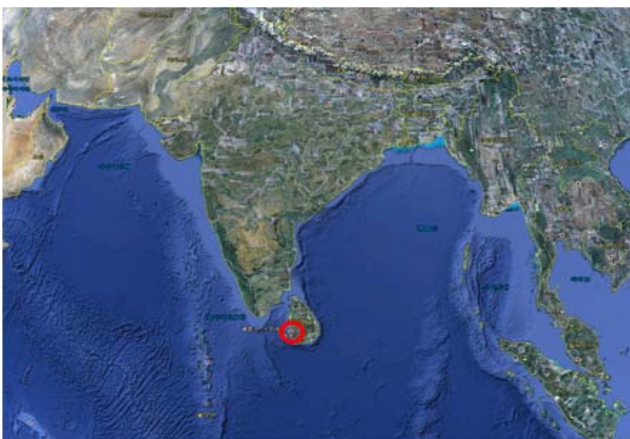
2) 해외투자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기업은 위클리 맨 뒷장의 [해외투자사업 추진절차 및 센터 이용문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MI 국제물류위클리

□ CMHI, 스리랑카 콜롬보 컨테이너터미널 개발·운영 계약 체결

- 중국의 China Merchants Group(CMG)의 항만관련 자회사인 China Merchants Holdings International(CMHI)사는 스리랑카 정부와 지난 8월 12일 중국 선전(Shenzhen)에서 Colombo South Container Terminal(CST)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
- CST 개발 및 운영사업은 BOT 방식으로 계약기간은 35년이며, CMHI사는 CST 개발을 위해 총 5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
 - CST 개발은 2단계에 걸쳐 진행될 예정인데, 사업규모는 선석길이 1,200m의 컨테이너 터미널 (평균 수심 18m, 연간 처리능력 240만 TEU)과 58헥타르의 화물처리장으로 구성
 - 1단계 개발은 2013년 완공되어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며, 터미널운영은 CMHI(55%), Aitken Spence Plc(30%, 스리랑카 지역기업), 스리랑카항만청(15%)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Colombo International Container Terminal(CICT)이 담당할 예정
- 이번 중국 CMHI사의 5억 달러 개발 사업은 스리랑카의 외국인직접투자 규모로서는 최대 규모로 계약 체결식에 직접 참여한 스리랑카의 라자파스카(Rajapaksa) 대통령은 계약과 관련 하여 “이번 CMG 그룹의 투자는 스리랑카의 항만산업 발전은 물론 국가 경제발전의 중요한 전환기를 제공할 것이며, CMG 그룹이 운영하는 선전항과 같이 이번 투자로 콜롬보항도 남아 시아의 환적허브로 발전될 것을 기대”한다며 향후 발전 가능성을 높게 평가

< 콜롬보항만의 위치 >



< CST 개발 평면도 >



자료 : CI-online, 2011.08.15; 스리랑카항만청 홈페이지.

김찬호 전문연구원(☎ 02-2105-2908, chkim@kmi.re.kr)



KMI 국제물류위클리

□ CMA CGM, 자메이카 킹스턴 남 '컨' 35년간 운영권 획득 및 1억 달러 투자 예정

- CMA CGM사는 자메이카 킹스턴 컨테이너 터미널(KCT; Kingston Container Terminal)의 남 '컨'에 해당하는 Gordon Cay Terminal의 35년 운영권 계약을 자메이카 정부와 체결하였음
 - CMA CGM사는 카리브해의 환적허브로 킹스턴항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이 계약에는 인프라 개선 및 장비성능 향상 등을 위한 1억 달러의 투자도 포함되어 있으며, CMA CGM사는 파나마 운하 확장공사 완료시기에 맞추어 2014년 투자를 완료할 계획임
 - 또한 현재 추진되고 있는 KCT의 민영화 작업과 이번 CMA CGM과의 계약은 무관하다고 자메이카 항만공사(PAJ; Port Authority of Jamaica)는 선을 그었음
- 킹스턴항은 컨테이너 전용부두인 KCT와 일반부두인 Kingston Wharves Terminal(KWT)로 구성되어 있으며, KCT는 2002년 2월부터 2009년 1월까지 APM 터미널사에서 운영한 바 있음
 - 해당 기간 동안 KCT는 머스크라인의 환적허브로 활용되었음
 - KCT는 3개 터미널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시설현황은 다음과 같음

< 킹스턴항 시설현황 >

구분	Kingston Container Terminal			Kingston Wharves Terminal
	North Terminal	South Terminal (Gordon Cay)	West Terminal	
선석길이	502m	1,378m	605m	1,600m
수심	12.5m	13.5m	12	8.9~9.7m

< 자메이카 킹스턴항 위치 >



< KCT 및 KWT >



자료 : www.jamaica-gleaner.com, 2011.08.07.

송주미 전문연구원(☎ 02-2105-2872, jmsong@kmi.re.kr)



KMI 국제물류위클리

□ 중국내 특송사업에서 손을 댄 DHL, 중국내 창고 확충 예정

- DHL사는 날로 활성화 되고 있는 중국 계약물류시장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중국내 창고를 확장 및 업그레이드할 계획임
 - 현재 DHL사는 중국 주요 도시에서 15개 이상의 창고(600,000m²)를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2년간 창고를 200,000m²까지 추가 확보할 계획임
 - 중국의 제조기지가 빠른 속도로 서부지역으로 이전되고 있는 가운데, DHL사는 이러한 추세에 적극 부응하여 우한(武漢), 충칭(重慶), 청두(成都) 등 내륙 거점도시에 복합물류센터를 추가 확보할 예정
- 한편, 지난 6월 29일 DHL사는 중국내 특송사업에서 철수하기로 발표하였으며, 향후 국제 특송업무에만 회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임
 - 2009년 DHL사는 중국내 특송사업을 전면 확장하기 위해, DHL-Sinotrans사를 통해 3개 중국 민영 특송기업을 인수하였으나, 2년도 안되는 사이에 9,923만 위안(약 1,554.8만 달러)¹⁾의 누적 손실을 봄
 - 이에 DHL사는 중국에서 국내 특송업무를 취급하는 DHL-Sinotrans사로 하여금 상기 3개 회사의 지분 전부를 선전(深圳) 유허다오통실업유한회사(友和道通實業有限公司)에 양도하기로 결정함
- DHL사가 중국내 특송사업에서 철수한 이유는 무한경쟁으로 인한 비용우위 부재와 중국정부의 정책적 제한에 기인함
 - 첫째, 중국내 특송시장에서 무질서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어 외자 특송기업으로서는 중국 국내기업에 맞설만한 비용우위가 부재
 - 예를 들면, 1kg의 소포를 항저우(杭州)에서 상하이로 발송할 경우 DHL사의 가격은 23.5%의 연료부가세를 포함하여 111.15위안(약 17.4달러)이나, 중국의 대표적인 민영기업인 위안통(圓通), 선통(申通), 윈다(韻達), 텐텐(天天) 등의 가격은 6~8위안(약 0.9~1.3달러)에 불과
 - 둘째, 2009년 10월 1일 시행된 수정 '우정법'은 외자기업을 국내 우편물 특송업무에 투자하거나 경영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으며, 2010년 합자기업도 외자기업의 범주에 포함시킴
 - 이는 중국내 우편물 등 문서 특송업무가 중국 전체 업무의 35%를 차지한 DHL-Sinotrans사에게는 큰 충격이었음

자료: www.sznews.com, 2011.08.05; www.americanshipper.com, 2011.08.08.

김홍매 전문연구원(☎ 02-2105-2828, hisgrace@kmi.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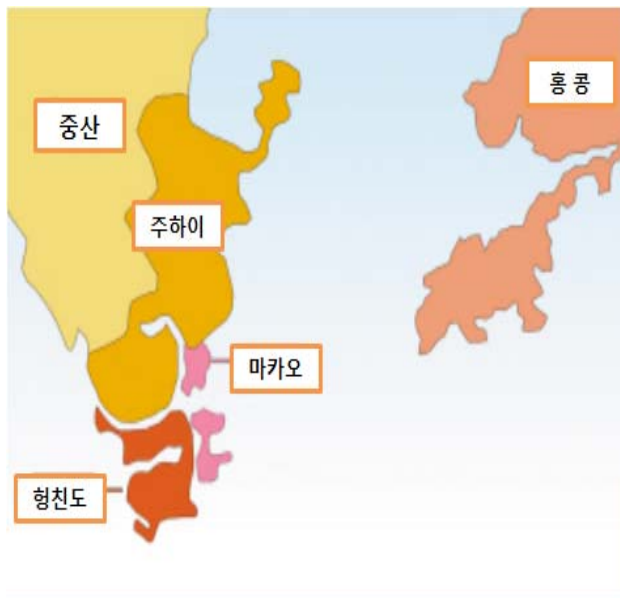
1) 2011년 8월 16일 중국인민은행 기준환율 1달러=6.382위안

KMI 국제물류위클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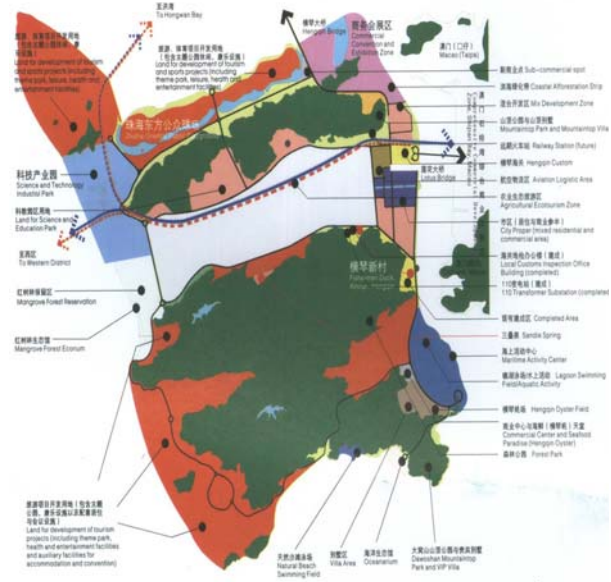
□ 중국, 주하이 형친도를 준(準) 자유무역지역으로 개발

- 중국 국무원(國務院)은 주하이시(珠海市) 형친도(橫琴島)에 경제특구보다 더욱 유리한 혜택을 부여한다는 새 정책을 승인하였으며, 국무원 신문판공실(홍보실)은 조만간 기자회견을 열어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임
 - 해외로부터 형친도에 반입되는 생산 관련 화물은 등록제를 통한 관리를 실시하며, 주하이나 중국 본토의 다른 지역으로 운송되지 않는 한 면세 적용을 받음
 - 형친도에 설립된 기업간 화물 거래에는 증치세와 소비세를 면제 받음
 - 형친도에 설립된 기업 중 적격기업으로 판정될 경우 15%의 소득세율을 적용 받음
- 형친도는 앞으로 준 자유무역지역으로 개발되며, 하이테크, R&D, 금융서비스, 비즈니스 및 관광 휴양 단지로 육성될 예정임
 - 형친도(106.46km²)는 주하이시 남쪽, 마카오 서쪽에 위치하며 홍콩과 마카오에 인접함
 - 2009년 8월 14일 “형친 전체 발전계획(橫琴總體發展規劃)”이 국무원의 승인을 받음에 따라 형친도는 주하이 경제특구에 편입됨
 - 형친도는 광둥(廣東), 홍콩과 마카오간 경제협력을 촉진하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형친도 위치 >



< 형친도 개발계획도 >



자료: www.chinanews.com.cn; 2011.08.11.

김홍매 전문연구원(☎ 02-2105-2828, hisgrace@kmi.re.kr)

KMI 국제물류위클리

[해외투자사업 추진절차 및 센터 이용문의]



* 기초타당성 조사(실비 부담), 정부간 협상, 투자사업 관련 정보 및 기초 자료 제공